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의 유머 이해에 대한 마음이론과 통합적 접근의 비교*

강 여 정 김 나 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기능과 마음이론뿐 아니라 Martin(2008)의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여 유머의 인지적·정서적 이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643명에게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를 실시한 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선별 방식을 적용하여 상위 10%(35점)는 분열형 고성향군, 하위 10%(5점)는 저성향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실험 참여에 동의한 총 70명(고40/저30)을 대상으로 실행기능검사, 마음이론 과제, 사회적 맥락파악과제, 정서지능척도, 유머이해 과제(인지적/정서적/전반적)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분열형 고성향군은 저성향군에 비해 전반적 유머이해과제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는 분열형 고성향군이 유머 이해에서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통합해서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에서 수행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행기능 중 보속성, 마음이론능력 중 등장인물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 맥락파악능력이 분열형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분열형 고성향군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신경 및 사회인지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이는 저성향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분열형 특질이 지닌 고유한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탐색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 분열형, 유머 이해, 마음이론, 통합적 접근, 사회인지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12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임.

이 논문은 2012년 가을임상심리학회에 포스터로 게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정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 02-3290-2060 / E-mail : kyj0822@gmail.com

유머는 대개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즉, 우스개, 익살, 해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우르는 범위가 매우 넓어 정확하게 정의내리기에는 힘들다. 유머의 개념이나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유머에 대한 관점들도 매우 다양하다.

유머 이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머의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Wild, Rodden, Grodd, & Ruch, 2003; Bartolo, Benuzzi, Nocetti, Baraldi, & Nichelli, 2006). 그러나 최근 유머를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즉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마음 이론 능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Uekermann, Channon, & Daum, 2006; Uekermann, Channon, Winkel, Schlebusch, & Daum, 2006). 이에 유머 이해에 대한 신경인지 능력과 마음이론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Uekermann, Channon과 Daum(2006)은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두엽 기능 저하와 마음 이론이 유머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나이에 따라 20~39세, 40~59세, 60~78세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행 기능 검사와 마음이론 과제, 유머이해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유머 이해도가 제일 낮았으며, 낮은 유머 이해도가 실행기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mentalising ability)과도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Uekermann, Channon, Lehmkamper, Abdel-hamid, Vollmoeller와 Daum(2008)이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행기능과 마음이론능력 모두가 유머 이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주목해 볼만한

것은 실행기능(.30~.50)보다 마음이론능력(.62)이 유머 이해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회귀 분석에서도 마음이론능력은 유머 이해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만화의 재미(funniness) 평정도 마음이론능력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44로 낮은 수준이었다. Uekermann, Channon, Winkel, Schlebusch과 Daum(2006)의 알코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음이론능력은 실행기능에 비해 유머이해와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유머이해의 유의한 예측인자라는 결과를 얻었다.

Martin(2008)은 이러한 유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유머의 과정이 네 가지 필수 성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사회맥락이해, 2) 인지-지각적 처리과정, 3) 정서반응, 그리고 4) 발성 행동인 웃음의 표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이 접근을 사용하여 유머 이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각 영역들을 떼어서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유머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주로 연구되어온 인지적 접근만이 아닌 정서적 접근과 사회적 맥락 이해와 같은 사회인지적 접근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머에 대한 정서적 접근과 사회인지적 접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Martin(2008)의 주장에 따라, 유머와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Yip & Martin, 2006). 정서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관찰하고 정서들을 구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지능의

한 형태라고 정의된다(Mayer & Salovey, 1993). Martin(2006)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유머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발달적 측면에서 정서 지능과 유머이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서 지능이 높은 유아들이 유머 활동을 통해 유머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승희, 2003). 비록 정서 지능과 유머 이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지라도, 유머 이해와 정서 지능의 정적 상관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Marin(2008)이 유머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영역은 사회적 맥락 이해이다. 이는 사회인지의 4가지 영역 중 하나인 사회 지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회적 지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식은 사회적 상황을 특징짓는 역할이나 규칙, 목표 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Corrigan & Green, 1993; Corrigan, Wallace, & Green, 1992). 사회적 맥락 이해와 유머 이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제시되는 자극으로부터 웃음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적 지식의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머 이해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이나 해프닝에 관한 인지적 해석과 그에 따르는 정서적 반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머는 단순한 인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Martin(2008)이 주장하는 정서를 포함한 사회인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머이해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인지적·정서적 특징은 정상인과 정신 장애

집단 모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정신 장애 집단에서는 재활과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신경인지와 사회인지 능력이 유머 이해를 설명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남에 따라, 두 가지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장애인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Corcoran, Cahill, Frith, 1997; Marjoram et al., 2005; Bozikas et al., 2007). Bozikas 등(2007)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유머이해(연구자들은 마음이론 유머이해라고 지칭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적 유머이해로 용어를 통일함)와 물리적 유머이해(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한 유머, 이하 물리적 유머이해라고 칭함)가 신경인지와 갖는 각각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유머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는 단순한 물리적 추론 능력만을 요하는 과제로서, 보다 고차원적인 사회적 추론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 물리적 추론 능력을 통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와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 모두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여 사회적 추론 능력이 신경인지와 갖는 관련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정신분열병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신경인지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추론이 요구되는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조차 수행하기 힘들며, 따라서 보다 고차원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 수행은 더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전두엽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추론 능력이 심

리적 및 물리적 유머이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두엽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손상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회적 추론 능력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Corcoran, Cahill와 Frith(1997)는 마음이론 능력과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시각적 농담(visual joke) 이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Bozikas 등(2007)의 연구와 비슷하게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와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를 사용해 정신분열병 환자와 정상군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정상군에서는 심리적 유머 과제와 물리적 유머 과제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심리적 유머 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정신분열병의 하위 유형에 따라 유머이해 능력을 분석한 결과, 편집형보다 행동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를 더욱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편집형 환자의 경우, 유지되고 있는 일반적인 추론 능력으로 물리적 유머이해과제에서는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추론 능력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인 타인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에 결함을 갖고 있어 심리적 유머이해과제에서는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일반적인 추론 능력 결함이 심리적 유머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arjoram 등(2005)도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낮은 유머 이해가 그들이 갖는 마음이론 능력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심리적 유머이

해 과제와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 모두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지만,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 두드러진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신분열병의 양성 증상이 마음이론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의 수행이 낮을 것이라 추측했으나 연구 결과는 양성 증상과 마음이론 간에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의 특정 양상이 유머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기보다는 마음이론 능력의 손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유머 이해에 관한 연구들은 마음이론 능력 손상이 유머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일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머 이해 능력의 손상에 대한 연구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잦은 입원 경험, 약물 복용 등의 변인이 혼입되어 분열형 특질과 유머 이해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앞서 말했듯, 유머 이해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노출의 빈도가 낮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머 이해를 연구하는 경우 분열형 특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정신분열병, 분열형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이 동일한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며, 분열형 성격은 정신분열병과 유전적 소인 또는 비슷한 성격 특질을 공유하는 일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적 측면이라고 알려져 있다(Claridge, 1997). 이러한 특질로 인해 분열형 성격은 장애로 진단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은 아니지만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을 약하게 경험하기도 하며,

정신분열병을 비롯한 정신 질환의 위험군으로 여겨진다(Champman, Champman, Kwapil, Echblad, & Zinser, 1994).

무엇보다도 분열형 성격은 정신분열병 환자와 전전두엽에서 비슷한 인지적 결함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경인지검사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인다(Mitropoulou et al., 2005; Koychev, El-Deredy, Haenshel, & Deakin, 2010). 또한 그들은 경미한 인지적·지각적 왜곡이나 기이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Raine, 2006). 특히 실행 기능 손상이 정신분열병이 갖는 핵심적인 특징인 만큼 분열형 고성향군의 사람들도 실행 기능에서 손상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Raine, 1991; 전춘수 & 김명선, 2010).

한편 분열형 고성향군은 낮은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하기도 한다(Horan & Blachard, 2003). 연구자들은 이들의 낮은 사회적 적응 수준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근래에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경인지기능 손상보다는 사회인지기능 손상이 환자들의 낮은 사회적응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에 따라(Brune, 2005b), 분열형 고성향군들의 낮은 사회적응 또한 사회 인지 기능과 더 높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분열형을 대상으로 한 사회인지 연구는 제한적이며, 마음이론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슬아, 2009). Brothers와 Ring(1992)은 분열형 고성향군이 인지적 마음이론과 정서적 마음이론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음을 나타내었고, 눈빛 과제(Meyer & Shean, 2006)와 속임수 탐지 과제(Malcom & Keenan, 2003)에서도 통제 집단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렇듯 분열형에게

마음이론 능력이 저하되어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갖는 마음이론 능력 손상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영향이나 장애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라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전적 소인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열형 특질과 유머 이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행해지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을 통해 분열형 성격 성향군이 유머 이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일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Majoram 등(2006)은 정신분열병의 친척 집단을 대상으로 fMRI를 사용해 시각적 농담(visual joke)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친척 집단은 심리적 유머과제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고, 두 집단에서는 마음 이론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전전두엽피질에서 활성화의 차이가 나타나 마음 이론 능력이 유머 이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고성향군의 개인들이 우스움(amusement)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Henry, Bailey, & Rendell, 2008) 분열형 고성향군은 유머로 유발된 정서 처리에서 어려움을 보고하거나 저성향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열형 성격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분열형 고성향군과 유머 이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정신분열병과의 관련으로 인해 분열형 고성향군도 유머 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열형 고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신경인지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사회인지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분열형 성격 성향의 개인들은 여러 보호요인으로 그들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사회 적응 수

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난이도의 과제에서는 천장효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분열형 성격 성향의 개인들에게는 비교적 고난이도의 과제가 요구되는데, 유머이해 과제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그에 수반되는 정서적 반응을 통합하여 이해해야 하는 비교적 고난이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머 이해의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낮은 사회 적응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머이해 과제를 통해 분열형 고성향군의 유머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열형 고성향군의 유머이해의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설명하는 변인을 찾고자, 신경인지능력, 마음이론 능력뿐 아니라 Martin (2008)이 강조하는 사회적 맥락 파악능력, 정서지능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분열형 고성향군은 저성향군에 비해 심리적 유머 이해도가 낮을 것인가?
2. 유머 이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열형 고성향군의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소재의 K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및 교양, 이공계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643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

(SPQ-K)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ine (1991), Mariapaola, Simon과 Maria(2012), 이슬아 (2009)가 사용한 선별 방식을 적용하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성향군,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저성향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는 35점이며, 저성향군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는 5점이다.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선별에서 제외 한 후, 절단점 기준에 따라 고성향군 64명, 저성향군 75명으로 총 139명을 선별하였다. 그러나 유머를 이해함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 4명, 교환학생 1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 하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분열형 고성향군 40명, 저성향군 30명으로 총 70명이다. 분열형 고성향군 집단과 저성향군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과 성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1.97, ns, t=2.04, ns$). 분열형 성격 성향을 측정하는 SPQ-K 점수에서는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유의하게

표 1. 분열형 성격 성향군과 통제군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열형 성격 척도 및 K-WAIS 어휘 소검사의 점수 비교

	고성향군 (n=40)	저성향군 (n=30)	t
연 령	22.75(2.30)	23.80(2.1)	-1.97
성 별			
남	17(42.5)	19(63.3)	
여	23(57.5)	11(36.7)	2.04
SPQ-K	41.25(5.07)	3.67(1.27)	39.64***
K-WAIS 어휘	44.93(8.34)	45.77(6.04)	-0.47

주. ()는 표준편차 혹은 %

*** $p <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64, p<.001$). 전반적인 지능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K-WAIS 어휘 소검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47, ns$).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SPQ-K 점수, 어휘 소검사 점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선별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특정 성격과 유머 이해에 관한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알리고,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보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후 참가 의사를 물었다. 139명 중 총 70명(고성향군/저성향군=40/30)이 실험 참가에 동의하였다. 실험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1시간 45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분열형 성격 척도(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K)

분열형 성격 성향을 갖는 개인들을 선별하기 위해 분열형 성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SM-III-R의 정의에 따라 Raine(1991)이 개발하고 문희옥, 양익홍, 이홍표, 김묘은, 함웅(1997)이 번안한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74문항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아니오'로 응답한다. Raine(1991)에 따르면, 개발 당시 SPQ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55%가 면접을 통해 분열형 성격으로 진단되었고, 나머지 45%도 분열형 성격의 특성을 3-5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될 수 있어 분열

형 성격을 선별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어왔다.

K-WAIS 어휘 소검사(Vocabulary)

일반적인 지능 수준이 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형 웨슬러 성인지능검사(염태호 등, 1992)의 어휘 소검사를 통해 분열형 고성향군과 저성향군의 일반적 지능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K-WAIS 어휘 소검사는 전체 지능과 상관이 높은 편이며(Wechsler, 1981; 이슬아, 재인용),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다(김정규 et al., 1992).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대표적인 전두엽 기능 검사로서, 작업 기억, 추상화, 규칙의 유지, 피드백에 대한 반응 등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Lezak, 1983)과 문제해결, 실행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Sullivan, Mathalon, Zipursky, Kersteen-Tucker, Knight, Pfefferhaum(1992)에 따르면, WCST는 3가지 요인으로 분석되며 각각은 보속성, 비효율적인 분류, 비보속 오류이며, 이 중 보속성 요인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인지기능 손상의 50%이상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Sullivan 등(1992)의 연구 결과에 따라 Manual, Victor, Francisco, Jose(1995)도 정신분열증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WCST를 실시하였으며, 보속성이 정신분열증의 특징적인 오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앞선 연구들에 따라 국내 연구에서도 고려원(1999)이 위스콘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위점수는 총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을 보속성, 개념형성, 지속오류라고 하였다. 또한 이 중 정

신분열병 환자들의 전두엽 기능 손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보속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선 연구 결과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CST의 하위요인 중 보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보속반응과 보속오반응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다.

선추적 검사 B(Trail Making Test B, TMT-B)

선추적 검사 B는 이중적인 관계(숫자와 글자)를 인식하는 능력, 계획 능력, 이동(shift) 능력, 보속 경향성, 점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Armitage, 1946). 채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Armitage (1946)는 실수와 상관없이 검사를 완성하게 하고 완성한 후 실수를 수정하지 못하면 0점을 주었다. Reitan (1958)은 피검자가 실수를 하면 즉시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여 실수 없이 검사를 완성하도록 했고 완성하기까지의 시간만을 채점했다(김민경, 현명호, 한상익, 2003). 본 연구에서는 Reitan(1958)의 방법에 따라 실수를 바로 지적하여 실수 없이 검사를 완성하도록 한 후, 총 걸린 시간만을 기록하였다.

단어-색상 스트룹 검사(Word-Color Stroop Test)

스트룹 검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실행기능 측정 도구로서, 선택적 주의력과 자극에 대한 인지적 융통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ezak, 1983). 특히 스트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고 과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 억제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지 못해

목표반응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반응이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억제하여 목표반응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정보처리 시간의 지체가 반응시간 증가에 반영된다(Kane & Engle, 2003).

힌트 과제(Hinting Task)

Cocorran, Mercer과 Firth(1995)의 힌트과제를 허두호 등(200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간접화법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총 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두 명의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두 명 중 한명이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피험자는 등장인물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오답일 경우, 힌트가 주어지게 되고 그 말을 한 등장인물은 다른 등장인물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힌트 없이 첫 번째 질문에서 정답을 맞히는 경우 2점, 힌트를 받은 후에 답을 맞히면 1점, 두 번 모두 실패한 경우에는 0점을 받게 된다. 총점은 0점에서 20점까지이다.

실언 과제(Faux pas)

V. Stone이 고안하고 신윤정(2004)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두 사람의 대화중에 한 사람이 실언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등장인물 중 어떤 사람이 실언을 했는지를 묻고 주어가 비어 있는 문항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한 후,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을 적게 하였다. 두 번째는 실언을 한 화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세 번째로는 실언을 한 화자의 기분에 대해서 묻는다. 네 번째는 통제 질문

으로 이야기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묻는다. 즉, 이 과제를 통해 주의를 기울여서 실언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인식론적 정신 상태, 의도성, 정서적 정신 상태에 관한 추론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채점은 올바르게 대답한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준다. 총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총점은 4점이다.

K-WAIS 차례 맞추기 소검사(Picture Arrangement, PA)

K-WAIS의 하위 소검사 중 하나인 차례 맞추기는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계획능력을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다(염태호 등, 1992).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3~6장의 그림카드를 구성되어 있다. 정해진 순서대로 그림카드를 제시한 후, 참가자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도록 그림카드를 배열하게 한다. 각 문항에는 시간제한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20점까지이다. 그림카드를 적절하게 배열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담겨 있는 단서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염태호(1998)에 따르면, 차례 맞추기는 시각조직능력, 비언어적 사고력, 시각조직과 예상능력, 사회적 지능, 의미평가와 의미 수렴적 생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다.

사회행동배열과제 개정판(Social Behavior Sequence Task Revised, SBST-R)

권정혜, 전진수, 최기홍(2003)이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사회적 도식 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주어진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여러 단계의 행동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검사이다(김나라, 이은

선, 강여정, 권정혜, unpublished). 6가지의 사회적 상황과 각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행동이 적힌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사회행동 배열과제의 6개 상황들 중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2개의 항목을 수정하였다. ‘벼룩시장에서 자전거 사기’를 ‘영화를 예매하고 본다’로 대체하였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기’는 인터넷 बैं킹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개설한다’로 변경하였다. 두 가지 문항에 대한 행동절차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의 9단계 행동 절차를 새롭게 고안하였다. 또한 카드 배열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상황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카드 제시 순서는 제시되는 사회적 상황의 순서와 행동절차 카드의 배열순서가 겹치지 않으며, 정해진 순서대로 제시된다. 수검자가 수행을 완료하면 검사자는 각 문항을 시행하는데 걸린 시간과 참여자가 배열한 카드의 순서대로 카드의 뒷면에 표시된 글자 기호를 검사 종이에 적는다. 문항 채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여기에 시간 변인을 추가한 계산식에 따라 사회행동 배열과제의 총점을 계산한다는 것이 기존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다.

특질 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Mayer와 Salovey(1993)는 정서 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관찰할 수 있고, 정서들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지능의 한 형태라고 정

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Mayer와 Salovey (1993)은 특질 메타-기분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하위요인구조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11 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 개선(5문항)’의 3가지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번안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다.

유머 이해 과제(Humor Comprehension Task)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만든 유머 이해 과제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기준에 따라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마음상태를 이해해야 웃을 수 있는 만화 10편(심리적 유머만화)과 일반적인 추론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단순한 물리적 추론이나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는 만화 10편(물리적 유머만화)을 선정하였다. 각 만화는 4~10장의 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TLAB을 사용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었다. 만화의 각 컷을 피험자가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자극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화를 본 후에는 만화 이해 여부를 ‘예(Y)/아니오(N)’로 반응하도록 하였고 이해 정도와 웃긴 정도(funniness)를 각각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는 인지적 유머이해, 정서적 유머이해, 전반적 유머이해를 각각 평가하였다. 1) 인지적 유머이해 과제. 각 만화의 주요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하고 검사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verbatim). 2) 정서적 유머이해 과제. 각 만화의 주요 장면에서 등장 인물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을지를 객관

식으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정서 형용사의 4지선다로 구성되었고, 제시된 보기들은 학부 과정 학생 3명, 경비원 2명, 심리학과 석사 과정 학생 5명에게 주관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정서 단어 사전에서 그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다. 4지선다에 해당하는 보기는 형용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10명 중 7-8명이 응답한 정서 형용사, 1-2명이 응답한 정서 형용사, 마지막 장면만을 고려했을 때 응답할 수 있는 정서 형용사, 전혀 상관없는 정서 형용사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임상 및 상담심리 석사 과정 학생 6명, 박사 과정 학생 4명에게 정서적 마음 이론 과제만을 풀도록 하여 4개의 보기 중 한 개의 보기가 70~80% 정답률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지적 유머이해 과제와 정서적 유머이해 과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등장인물의 수에 따라 문항의 수를 정했으며, 각 문항에 올바른 답을 한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는 ‘이 만화의 어떤 부분이 웃겼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반드시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답’을 하도록 안내하고 검사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verbatim). 각 문항에 대해 피험자가 만화를 정확하게 이해한 답을 하였으면 2점, 부족하거나 부분적인 답을 하였으면 1점,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는 장소 단서와 같은 이야기 내용의 세부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머 이해 과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다.

결 과

실행기능, 마음이론, 사회적 맥락파악 능력, 정서지능, 유머 이해의 집단 간 차이

실행기능검사, 마음이론 과제, 사회적 맥락 파악 과제, 정서지능, 유머이해 과제에서 분열형 고성향군과 저성향군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행기능검사에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의 보속성($t=-1.21$, ns)과 보속 오반응($t=-1.2$, ns), 선추적 검사B($t=-0.08$, ns), 그리고 스트룹 과제의 간섭시간($t=0.90$, ns), 간섭수($t=0.81$, ns) 모두에서 고성향군과 저성향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이차 틀린믿음 과제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와 내용파악 문제($t=-1.24$, ns , $t=-1.60$, ns), 그리고 실언과제 중 실언의 의도성과 통제 질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25$, ns , $t=-0.87$, ns). 반면, 실언과제의 하위항목 중 등장인물의 정신 상태와 실언을 한 등장인물의 정서를 묻는 질문에서는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점수가 낮았다($t=-3.00$, $p<.01$, $t=-2.46$, $p<.05$). 힌트과제에서도 분열형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t=-3.93$, $p<.001$).

또한, 사회적 맥락 파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차례 맞추기($t=-0.63$, ns)와 사회 행동배열과제($t=-0.69$, ns)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성향군과 저성향군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익한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특질 메타-기분 척도에서는 정서 지능의 하위 유형인 정서명료성($t=-5.94$, $p<.001$)과 정서개선($t=-3.09$, $p<.01$)에서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읽는 능력과 정서를 개선시키는 능력이 고성향군 집단이 저성향군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머이해 과제 중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96$, ns). 반면,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는 인지적 유머이해 과제($t=-1.11$, ns)와 정서적 유머이해 과제($t=-0.40$, n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만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인지적·정서적으로 통합해서 이해해야 하는 유머과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t=-3.44$, $p<.001$).

고성향군의 유머이해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를 설명해 주는 변인들

분열형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의 낮은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행기능검사, 마음이론 과제, 사회적 맥락 파악 과제, 정서 지능,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 수행의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이 있음이 확인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이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량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

표 2. 실행기능, 마음이론, 사회적 맥락 파악, 정서지능에서의 집단 간 차이비교

	고성향군(n=40)		저성향군(n=3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행기능					
WCST					
보속 반응수	37.98	9.68	40.63	8.35	-1.21
보속 오반응수	13.53	5.40	15.27	6.74	-1.2
TMT (반응시간, 초)	54.87	15.50	55.15	14.37	-0.08
Stroop 검사					
간섭시간	0.08	0.04	0.08	0.06	0.90
간섭수	6.85	8.61	5.37	5.93	0.81
마음이론					
틀린 믿음 과제					
인물 이해	1.95	0.22	3	0.00	-1.24
내용 파악	1.23	0.80	1.50	0.57	-1.60
실연 과제					
정신상태	2.85	1.02	3.5	0.68	-3.00**
의도	2.15	1.08	2.47	1.01	-1.25
정서	1.23	1.07	1.97	1.45	-2.46*
내용 파악	3.73	0.60	3.83	0.38	-0.87
힌트 과제	14.03	1.72	15.5	1.31	-3.93***
사회적 맥락 파악					
차례 맞추기	15.03	2.55	15.4	2.33	-0.63
사회 행동 배율 과제	44.47	4.60	45.17	3.57	-0.69
특질 메타-기분 척도					
정서 명료성	23.68	6.39	32.87	6.44	-5.94***
정서에 대한 주의	14	4.05	14.67	3.74	-0.70
정서 개선	9.9	4.30	12.9	3.61	-3.09**
유머 이해					
심리적 유머 이해					
인지적 유머 이해	15.65	1.51	16.03	1.33	-1.11
정서적 유머 이해	13.63	1.82	13.8	1.81	-0.40
전반적 유머 이해	11.58	5.02	15.13	3.00	-3.44***
물리적 유머 이해					
	15.65	1.55	16	1.46	-0.96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실행기능, 마음편, 사회적 맥락 파악, 정서 지능과 전빈적 유머이해와의 상관분석

구분	보속 반응	보속 오반응	WISC-III	간접 시간	간접수	인물 이해	내용 파악	정신 상태	외도	정서	내용	힌트	정서 영표정	정서 주의	정서 기준	가계 맞추기	WISC-III	전빈적 유머			
보속반응	1																				
보속오반응	.72**	1																			
WISC-III	-.05	.18	1																		
간접시간	-.25	-.25	-.33*	1																	
간접수	.02	.05	.01	.01	1																
인물이해	-.07	-.13	-.06	-.31	.02	1															
내용파악	-.04	-.18	-.05	-.09	-.00	-.36*	1														
정신상태	-.11	-.06	-.34*	.15	-.14	-.19	.20	1													
외도	-.31	-.47**	-.21	.04	-.12	-.14	-.14	.44**	1												
정서	-.10	-.15	-.11	.06	-.10	-.06	.09	.10	-.05	1											
내용	-.18	-.25	-.14	.37*	.07	.28	-.13	.35*	.11	.18	1										
힌트	-.11	.31	.12	-.20	.08	.03	-.04	.21	.07	.05	.21	1									
정서영표정	-.40**	-.29	-.08	.05	-.02	-.13	.05	.08	.34	-.11	.06	-.13	1								
정서주의	-.19	-.04	-.20	-.13	.11	.29	.10	.41**	.07	.12	.20	.15	.25	1							
정서기준	.04	.12	-.02	-.14	.30	-.06	-.06	.04	.00	-.02	-.10	-.01	.33*	.18	1						
가계맞추기	-.36*	-.50**	-.01	.10	-.01	.28	.22	.18	.29	.16	.22	.04	.190	.20	.04	1					
WISC-III	-.38*	-.50**	-.31	.34*	.14	.05	.12	.11	.22	.15	.42**	-.07	.21	-.06	-.29	.12	1				
전빈적유머	-.42**	-.48**	-.05	-.02	.20	.12	.06	.32*	.32*	-.08	.25	.34*	.31	.13	.12	.46*	.36*	1			

주: 보속반응, 보속오반응은 WISC-III 간접시간과 간접수는 스토를 읽사, 인물이해와 내용파악은 이가 불린을 의해, 정신상태, 외도, 정서, 내용은 심인파계, 정서영표정과 정서주의, 정서기준은 복결 메타기문 하도의 하위 영역에 해당함.
* $p < .05$, ** $p < .01$.

표 4. 실행기능, 마음이론, 사회적 맥락 파악의 분열형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에 대한 설명량

	고성향군					
	β	t	R^2	ΔR^2	F	p
실행기능						
WCST_보속반응	-.42	-2.83	.17	.17	8.02**	.007
WCST_보속오반응	-.48	-3.40	.23	.23	11.56**	.002
마음이론						
실언과제_정신상태	.32	2.09	.10	.10	4.35*	.044
실언과제_의도	.32	2.05	.10	.10	4.21*	.047
힌트과제	.34	2.25	.12	.12	5.07*	.030
사회적 맥락 파악						
차례 맞추기	.46	3.16	.21	.21	9.97**	.003
SBST	.36	2.35	.13	.13	5.54*	.024

* $p < .05$. ** $p < .01$.

며 이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이 전반적 유머이해를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행기능에서는 WCST의 보속반응과 보속오반응이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의 낮은 수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속반응은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이해도를 15%정도 설명하였고($\beta = -.42, p < .01$), 보속오반응은 약 21%를 설명하였다($\beta = -.48, p < .01$). 반면, 저성향군의 경우에는 WCST의 보속성과 보속오반응이 저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실언과제 중 정신 상태와 의도성 질문이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각각 8%($\beta = .32, p < .05$) 설명하였고, 힌트과제의 수행은 10%($\beta = .34, p < .05$)정도로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이해를 설명하였다. 반면, 저성향군의 경우에는 마음이

론 능력이 저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맥락 파악능력을 측정하는 K-WAIS 차례 맞추기 소검사와 사회행동배열 과제도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 수행을 상당 수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맞추기는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19%($\beta = .46, p < .01$), 사회행동배열 과제는 10%($\beta = .36, p < .05$) 설명하였다. 반면, 저성향군의 경우에는 사회적 맥락 파악능력이 저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분열형 특질과 유머이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정신분열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한

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Bozikas et al., 2007). 유머이해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이나 해프닝에 관한 인지적 해석과 그에 따르는 정서적 반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머를 이해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 노출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유머 이해에 있어 정상인들에 비해 수행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유머이해에는 고차원적인 사회적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데,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보다 기본적인 물리적 추론 능력에서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Bozikas et al., 2007, Corcoran, Cahill, Frith, 1997).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과 비슷한 분열형 특질을 지닐 가능성이 높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유머 이해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분열형 성격 대학생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 수준이 높아 이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과제보다 고난이도의 과제가 필요함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머 과제를 사용하여 그들의 유머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나아가 분열형 특질이 지닌 인지적·정서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분열형 고성향군은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는 저성향군과 유의한 차이나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 중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에서만 분열형 고성향군이 저성향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분열형 고성

향군이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의 인지적 과제와 정서적 과제에서 저성향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분열형 고성향군은 인지적·정서적 능력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저성향군에 비해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분열형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분열형 고성향군의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유머이해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음이 보고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 결과 실행 기능 중에서는 WCST의 보속성(보속반응, 보속 오반응), 마음이론과제에서의 실언과제의 정신 상태와 의도성, 힌트과제, 그리고 사회적 맥락 파악 과제에서의 수행이 분열형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기의 어떠한 요인도 저성향군의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열형 고성향군이 지닌 분열형 특질의 고유한 양상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실행 기능 중 보속성이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행 기능이 유머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Bozikas 등(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실행 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속성이 분열형 고성향군의 심리적 유머 이해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검사이인 TMT-B는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유의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MT-B의 경우, 숫자와 글자를 번갈아가면서 있는 과제임을 고려해보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4 가지 중 융통성 있게 선택을 해야 하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을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속성의 관점에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가 더 복잡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실언과제의 정신 상태, 즉, 등장인물이 왜 그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의 수행이 분열형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언과제의 시나리오 속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을 추론하는 능력의 저하가 유머 과제 속 여러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추론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 중 전반적 유머이해 과제는 만화 속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상황과 인물들 간의 오해 등에 대한 고차원적인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이론 능력의 저하가 만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언과제의 의도성 질문 또한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를 묻는 마음이론 과제인 힌트 과제에서도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능력의 저하가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마음이론 능력이 유머 이해를 설명한다는 결과는 Uekermann 등(2006, 2007)의 연구들과도 일

맥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 능력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과 의도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머이해의 낮은 수행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인의 생각과 의도 파악 능력이 부족한 고성향군이 인지적·정서적으로 통합하여 이해해야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사회적 맥락 파악 능력 역시 고성향군의 전반적 유머 이해의 낮은 수행을 설명해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차례 맞추기와 사회행동배열과제 두 가지 모두 고성향군의 낮은 유머 이해 과제 수행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만화 속 사회적 단서를 찾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의 저하가 만화에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유머 이해 수행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사회적 맥락 파악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인지 능력의 하나인 사회적 맥락 파악 능력이 분열형 고성향군의 낮은 전반적 유머 이해도를 설명하는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만화 자극의 친숙도가 통제되지 못한 것이다. 만화 자극은 연구자가 온라인 상에 있는 만화 중 심리적·물리적 유머 이해 과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 간에 친숙도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을 실시한 후, 구두로 피험자에게 유머 자극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유머 자극에 대한 친숙도가 낮았지만, 두세 명의 경우에는 친숙도가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자극의 친숙도를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한 것이 유머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와 비슷하게, 이전에 만화 자극을 자주 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머 이해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 만화의 컷 수가 일정하지 못한 점이다. 심리적 유머 과제와 물리적 유머 과제로 사용된 만화의 컷 수는 4~10장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1장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통제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자극들은 국내의 문화에 맞지 않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극들을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1장으로 구성된 심리적 유머 자극이나 물리적 유머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만화 컷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머 이해 과제에서 사용되는 만화 자극과 만화 자극에 대한 친숙도 등을 통제함으로써 유머 자극의 동질성(equivalent)을 이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분열형 고성향군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인지적·정서적 능력을 통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변인들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신경인지능력이나 마음이론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파악 능력 등 다양한 사회 인지적 변인들을 탐색하여 유머이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맥락 파악과 같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변인이 분열형 고성향군의 통합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열형 특질을 갖는 개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낮은 사회 적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맥락 파악능력과 같은 사회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종래의 연구들은 분열형 특질이 갖는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유머라는 소재를 사용해 인지적·정서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분열형 고성향군이 지닌 인지적·정서적 능력 통합의 어려움이 분열형 특질이 지닌 인지적·정서적 매커니즘의 가능성일 수 있음을 확인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원 (1999).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WCST)의 인지요인분석: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혜, 전진수, 최기홍 (2003). 사회행동 배열 과제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인지 능력을 측정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11.
- 김나라, 이은선, 강여정, 권정혜 (unpublished). 사회행동 배열과제 개정판 타당화 연구.
- 김민경, 현명호, 한상익 (2003). 뇌손상 환자와 알콜 환자의 선추적검사 B의 수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463-473.
- 김정규, 염태호, 오경자, 박영숙, 이영호 (1992). 한국판 웨슬리지능검사 개정판의 문항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10.
- 문희옥, 양익홍, 이홍표, 김묘은, 함 응 (1997). 한국판 분열형 성격척도의 타당화 예비연

- 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6(2).
- 신윤정 (2004). 정신분열병 환자의 마음 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승희 (2003). 정서 지능 수준에 따른 유머 활동 경험이 유아의 창의성과 유머 이해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1992). K-WAIS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 염태호 (1998). K-WAIS의 구조에 대한 이론과 소검사 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93-310.
- 이수정, 이훈구 (1997). 사회 및 성격: Trait Meta-Mood Scale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슬아 (2009).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사회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수, 김명선 (2010). 분열형 인격성향과 강박성향을 가진 여자대학생의 신경심리 프로파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387-405.
- 허두호, 박재홍, 권성민, 김양태, 권도훈, 조성남, 유병국 (2006).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힌트과제와 눈빛과제를 이용한 마음이론의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2(2), 215-223.
- Armitage, S. G. (1946). An analysis of certain psychological tests used for the evaluation of brain injury. *Psychological Monographs*, 60(1).
- Bartolo, A., Benuzzi, F., Nocetti, L., Baraldi, P., & Nichelli, P. (2006). Humor comprehension and appreciation: an fMRI stud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8(11), 1789-1798.
- Bozidak, V. P., Kosmidis, M. H., Giannakou, M., Anezoulaki, D., Petrikis, P., Fokas, K., & Karavatos, A. (2007). Humor appreciation deficit in schizophrenia: the relevance of basic neurocognitive functioning.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4), 325.
- Brothers, L., & Ring, B. (1992). A neuroethological framework for the representation of minds.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4(2), 107-118.
- Brüne, M. (2005). Emotion recognition, 'theory of mind,' and social behavior in schizophrenia. *Psychiatry Research*, 133(2-3), 135-147.
- Champman, Loren. J., Champman, Jean P., Kwapil, Thomas R., Eckblad, Mark, Zinser, Michael C. (1994). Putative psychosis-prone subjects 10 years la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171-183.
- Claridge, G. E. (1997). *Schizotypy: Implications for illness and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 Corcoran, R., Cahill, C. & Frith, C. D. (1997). The appreciation of visual jokes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a study of 'mentalizing' ability. *Schizophrenia Research*, 24(3), 319-327.
- Corcoran R., Mercer G., Frith C. D. (1995). Schizophrenia, symptomatology and social inference: "Investigating theory of mind"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Schizophr Res*, 17, 5-13.
- Corrigan, P. W., & Green, M. F. (1993). Schizophrenic patients' sensitivity to social cues: the role of abstra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589-594.
- Corrigan, P. W., Wallace, C. J., & Green, M. F. (1992). Deficits in social schemata in

- schizophrenia. *Schizophrenia Research*, 8, 129-135.
- Henry, J. D., Bailey, P. E., & Rendell, P. G. (2008). Empathy, social functioning and schizotypy. *Psychiatry Research*, 160(1), 15-22.
- Horan, W. P., & Blanchard, J. J. (2003). Emotional responses to psychosocial stress in schizophrenia: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ffective traits and coping. *Schizophrenia Research*, 60(2), 271-283.
- Lezak. (1983).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lcolm, S., & Keenan, J. P. (2003). My right I: Deception detection and hemispheric differences in self-aware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8), 767-771.
- Manuel J. C., Victor P., Francisco C., & Jose L. (1995). Schizophrenic symptoms and Wisconsin Card Sorting Test dimensions. *Psychiatry Research*, 58, 45-51.
- Mariapaola B., Simon L. C., & Maria C. (2012). Altered depth perception is associated with presence of schizotypal personality traits. *Cognitive Neuropsychiatry*, 17(2), 115-132.
- Marjoram, D., Tansley, H., Miller, P., MacIntyre, D., Owens, D., Johnstone, E., & Lawrie, S. (2005). A theory of mind investigation into the appreciation of visual jokes in schizophrenia. *BMC psychiatry*, 5(1), 12.
- Marjoram, D., Job, D., Whalley, H., Gountouna, V., McIntosh, A., Simonotto, S., Owens, D., Johnstone, E., & Lawrie, S. (2006). A visual joke fMRI investigation into Theory of Mind and enhanced risk of schizophrenia. *Neuroimage*, 31, 1850-1858.
- Martin, R. A. (2008). 유머심리학. 박학사.
- Mayer, J. D., & Salovey, P.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4), 433-442.
- Meyer, J., & Shean, G. (2006). Social-cognitive functioning and schizotyp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40(3), 199-207.
- Mitropoulou, V., Harvey, P. D., Zegarelli, G., New, A. S., Silverman, J. M., & Siever, L. J. (2005). Neuropsychological performance in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importance of working memo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10), 1896-1903.
- Kane, M. J., & Engle, R. W. (2003). Working-memory capacity and the control of attention: the contributions of goal neglect, response competition, and task set to Stroop inter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2(1), 47.
- Koutsouleris, N., Patschurek-Kliche, K., Scheuerecker, J., Decker, P., Bottlender, R., Schmitt, G., Meisenzahl, E. M. (2010). Neuroanatomical correlates of executive dysfunction in the at-risk mental state for psychosis. *Schizophrenia Research*, 123(2-3), 160-174.
- Raine, A. (1991). The SPQ: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schizotypal personality based on DSM-III-R criteria. *Schizophrenia Bulletin*, 17(4), 555-564.
- Raine, A. (2006). Schizotypal personality: Neurodevelopmental and Psychosocial Trajectories.

-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 291-326.
- Reitan R. (1958). Trail Making Test: Manual for administration, scoring and interpretation. Indianapolis: Department of Neurology, Indiana University Medical Center.
- Sullivan, E., Mathalon, D., Zipursky, R., Kersteen-Tucker, Z., Knight, R., & Pfefferbaum, A. (1992). Factors of the Wisconsin Card Sorting Test as Measures of Frontal-Lobe Function in Schizophrenia and in Chronic Alcoholism. *Psychiatry Research*, 46, 175-199.
- Uekermann, J., Channon, S., & Daum, I. (2006). Humor processing, mentalizing, and executive function in normal aging.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12(2), 184-191.
- Uekermann, J., Channon, S., Winkel, K., Schlebusch, P., Daum, I. (2006). Theory of mind, humour processing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alcoholism. *Society for the Study of Addiction*, 102, 232-240.
- Uekermann, J., Channon, S., Lehmkamper, C., Abdel-hamid, M., Vollmoeller, W., Daum, I. (2008). Executive function, mentalizing and humor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14, 55-62.
- Wild, B., Rodden, F. A., Grodd, W., Ruch, W. (2003). Neural correlates of laughter and humour. *Brain*, 126(10), 2121-2138.
- Yip, J. A. & Martin, R. A. (2006). Sense of Humo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6), 1202-1208.
- 원고접수일 : 2012. 09.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1. 22.
게재결정일 : 2013. 05. 30.

Comparison between Theory of Mind and Integrative Approach on Humor Appreciation of Individuals with Schizotypal Personality

Yeo Jung Kang

Na Ra Kim

Jung 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o investigate cognitive and emotional appreciation of humor among schizotypal undergraduates on schizophrenia spectrum from various angles, the current study examines not only executive functions and theory of mind, but also Martin's integrative approach as well. In this study, SPQ-K was given to 643 university students, and the screening method employed in previous studies(top 10% as the high tendency group, bottom 10% as the low tendency group). A total of 70(high/low=40/30) participants were examined for their neurocognitive ability, theory of mind, social context comprehens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formance of humor appreciation task(cognitive/emotional/genera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 tendency group showed a difference in overall understanding during performance of general humor tasks.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y scored lower on tasks that require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in humor appreciation. Second, perseveration, inference ability of character's thoughts and intentions, and social context comprehension ability were shown as the factors that explain poor understanding of humor in the high tendency group. This paper implies that their difficulties in complex social situations can be explained by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schizotypal trait which is complicated relation to neurocognitive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Key words : Schizotypal Personality, Humor, Theory of mind, Integrative Approach, Social cognition

부록. 유머이해 과제

[심리적 유머이해 과제 예시]

철수는 쌀을 씻고 있던 중 친구가 고기를 사준다는 연락을 받고 외출을 하게 된다. 철수는 형이 퇴근해서 방에 들어왔을 때 이불 밑의 고양이를 밟을 것을 걱정하여 ‘여기 고양이 있음’이라는 쪽지를 써서 이불 위에 둔다. 철수가 나가면서 열렸다 닫힌 문이 바람을 일으켜 종이 날아간다. 형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그 종이는 밥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수증기가 나오고 있는 밥통 위에 놓여있었고, 형은 그것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진다.

- Q1. 고양이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 Q2. 형이 생각하기에 고양이는 어디에 있나요?
- Q3. 이 만화의 어떤 부분이 웃겼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만화를 보고 느껴지는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Q4. 마지막 장면에서, 형은 어떤 기분일까요?
1) 무서움 2) 걱정되는 3) 어이없는 4) 즐거운
- Q5. 형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거야!”라고 화를 내었다면, 동생은 어떤 기분일까요?
1) 화난 2) 슬픈 3) 당황스러운 4) 걱정스러운

[물리적 유머이해 과제 예시]

주인공은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식당에 갔다. 자신이 불편해하게 생각하던 사람과 제일 멀리 떨어져 앉기 위해 불편해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안쪽으로 안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차례로 테이블로 안내한 후, 남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원탁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은 불편해하는 사람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 Q1. 남자 주인공은 결국 어디에 앉게 되었나요?
- Q2. 남자 주인공은 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나요?